

독일 함부르크 주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초등 음악교과 내용의 변화*

주 대 창**

본 연구는 서양 초등 음악교과 내용의 한 세대의 간격을 두고 어떻게 달라졌으며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국과 비교적 유사한 제도를 가진 독일 함부르크 주의 교육과정을 예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이미 1970년대에 초등 음악교과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대부분의 사항을 다루고 있었으며, 그 경향은 2000년대에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이르러 문화적 관련성 및 음악에 대한 사고적 접근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며, 교과 내용의 제시가 수업용 주제의 도출을 위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음악교과의 취지를 수요자의 입장에서 도출해 내고 그것에 충실한 수업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주제어 : 음악교과 내용, 음악교과 교육과정, 초등 음악교육, 독일 음악교육

차 례

I. 서 론

II. 1970년대

- | | |
|----------|-----------|
| 1. 전체 구조 | 2. 교수법 관련 |
| 3. 내용 구성 | |

III. 2000년대

- | | |
|----------------|----------|
| 1. 전체 구조 | 2. 목적·목표 |
| 3. 교수법적 원칙 | 4. 내용 구성 |
| 5. 성취도 및 평가 기준 | |

IV. 특징적 변화

V. 결 론

* 본 연구는 2007년도 광주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광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I. 서 론

음악교육은 항상 음악과 같은 맥락에서 발전 또는 변화를 해 온 것이 아니다. 특히 학교 음악교육은 음악보다 사회의 변천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그래서 음악교과교육을 강하게 실시하는 사회에서는 음악교과와 내용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본 연구는 초등 음악교과와 내용이 한 세대의 간격을 두고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독일 함부르크 주의 교육과정 중 1970년대의 것과 2000년대의 것을 사례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 음악교육의 역사가 긴 선진국 가운데 독일은 한국의 음악교과 제도와 비교적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곳의 내용 변화는 음악교과와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한국의 실정에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먼저 각 교육과정의 전체 구조를 알아보고, 이어서 교과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부분을 점검하고자 한다. 음악교과와 내용은 교육과정별로 별도의 시스템에 의해 열거되고 있어서 하나의 틀에 넣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음악교과 내용의 전반적 변화를 직접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이 취하고 있는 체제와 그 내용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대 음악교과와 내용이 하위 지침의 지식이나 기능 등으로 독립되어 나타나지 않고 상위의 교과 성격과 그것을 구현하는 교수법적 사항에 종속적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1970년대 교육과정이라고 함은 1973년 공포된 ‘음악교과 수업 계획’(Lehrplan Musik)을 지칭하며, 2000년대 교육과정이라 함은 2003년 공포된 ‘음악교과 기본 계획’(Rahmenplan Musik)을 이른다. 그 사이에 있었던 교육과정 개편은 한 세대의 차이를 조명하기 위하여 부득이 논의의 밖에 둔다. 그리고 부분적 예외가 있지만 독일의 전통적 초등학교 체제는 4학년제이며, 본고에서는 그 체제를 따른다.

II. 1970년대

1. 전체 구조

1970년의 음악교과 교육과정은 크게 보아 이분 구조의 틀을 가지고 있다. 즉, 'A. 안내지침들'(Richtlinien)과 'B. 내용들에 대하여'(Zu den Inhalten)로 나뉜다. 앞부분에는 '교수법에 대하여'(Zur Didaktik)라는 부제가 붙어 있으며, 모두 6개의 하위 부분을 갖는다. 그 전체 구성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1970년대 교육과정의 구성

구분	하위 영역	
교수법	[성격]	1. 초등학교에서 음악수업의 과업들
	[구성]	2. 수업 구성의 일반적 안내
		3. 작업 형태
		4. 수업 성취도 평가
		5. 작업 수단 및 매체
		6. 참고 문헌
내용	1. 청각적 지각(수용과 반향)	
	2. 음악적 활동(생산과 재생산)	
	3. 음악적-음향적 지식	
	4. 공공생활에서의 음악	
부록	두 개의 수업안 예시	

교과 내용의 제시에 앞서 수업에 대한 사항을 먼저 언급한 것은 음악교과의 특성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보다 '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기인함을 시사한다. 말하자면, 먼저 초등학교 음악수업의 성격을 그 과업들에서 찾고, 이어서 수업 구성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교수법적 사항을 '음악교과의 성격'과 '음악수업의 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2. 교수법 관련

1) 음악 교과목의 성격

음악수업의 과업들은 특정 이론의 언급보다 현실의 직시를 통해 미관식의 형태로 제시된다. 이 부분의 초점은 음악교육 활동의 준거를 밝히는 데 있다. 즉, 'a. 학생들의 필요에 부응하여', 'b. 사회적 현실에 부응하여', 'c. 음악 자체에 부응하여' 실제적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세 가지 지침의 제시에는 두 가지의 전제 사항이 들어 있다. 첫째, 음악은 이미 취학 전 교육에 쓰였으며, 초등학교에서는 독립적 수업영역이다. 둘째, 미적 교육(ästhetische Erziehung)으로서의 음악교육이다.

음악교과교육이 음악적 사항의 전달에 매여 있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 하기 때문에 수업의 형태 역시 그것에 준하여 안내된다. 다양한 형태의 실험적 활동, 즉흥연주, 재생산, 노래하기, 놀이하기, 신체 움직이기를 권장하며, 자의식 및 사회성, 언어적 소통 능력의 촉진을 주문한다. 나아가 대중매체에 노출된 어린이들이 수동적 소비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초등 음악수업의 가치가 있다.

사회적 현실과 관련하여 어린이들이 이미 사회 속의 음악과 음향의 상황에 영향을 받음을 간과하지 말 것을 안내한다. 그래서 체계적 청취교육이 필요하다. 음악 자체의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음악이 인간 표현능력의 고유한 형식임을 안내한다. 음악 만들기과 음악 듣기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음악의 구성 요소, 음향생산 수단, 형식 전개, 기록과 재생산에 대한 기초 지식을 얻게 한다.

음악교과에서 고려하여야 할 이 세 가지 영역(a-c)은 서로 묶여 있으므로 일정한 서열을 갖지 않는다. 뒤에 제시되는 각 내용 영역들 역시 상호관련의 입장에서 서로 교차시켜 다룰 수 있다. 아울러 3·4학년의 경우에 범교과적인 프로젝트 방식의 수업이 허용된다.

음악수업의 과업을 설명하는 부분의 말미에는 음악수업의 의의로 어린이들이 음악을 '즐겁게' 배워야 할 것임이 명시된다. 그러므로 음악수업은

지식의 전수를 넘어서서 그러한 개인적 경험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음향과 자신의 목소리 및 놀이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아름답게 느낀 것에 대한 인식 및 거리낌 없는 반응이 거론된다. 이것은 음악수업의 장이 기본적으로 즐기기 공간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초등학교에서 음악수업은 어린이들의 즐거운 학습이 '성공할 때만' 그 과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음악수업의 구성

현장에서 실제로 음악수업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는 '수업 구성'→'작업 형태'→'수업 성취도 평가'의 순서로 나눠 설명된다. 이어서 '작업 수단 및 매체'가 제시되어 있고, 맨 끝에는 '참고 문헌'이 온다.¹⁾

음악수업은 당연히 수업 시수에 따라 운영되나, 늦어도 3학년부터 교과 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학습심리의 관점에서 보면 저학년은 배움에 대한 욕구가 많으나, 집중력과 인식 능력의 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단위를 10-20분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음악 듣기 예의 길이도 2분을 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한다.

제시된 학습 목표들은 전체 학년에 모두 해당되며, 학습 내용의 선택과 조합은 학생들의 연령과 학습 수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학습 내용들이 각 학년에 맞게 조절되고 재구성되어 사용된다. 이것은 이후 제시될 지도 내용들이 학년 구분 없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음악 듣기 영역에서 학습 대상으로 나오는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는 '음높이의 구별'이라는 학습 목표와 연결되어 있는데, 저학년의 경우 '사자의 소리'를 통해 음높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을 보여준다면, 4학년의 경우 반음계 선율의 움직임의 다룰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음악수업은 이전부터 줄곧 학교 행사에 기여해 왔으며, 앞

1) '작업 수단 및 매체'에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악기, 교구, 전자기기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것들과 참고문헌은 음악교과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으므로 본 고찰에서 제외한다.

으로도 그러한 면이 지속될 것임을 안내하고 있다. 물론 본래의 교과수업이 소홀히 되지 말아야 함을 전제한다. 다양한 음악관련 그룹 활동들이 음악수업에서의 활동과 연계되어 축하행사, 축제, 학부모 행사 등에서 발표되도록 한다.

3) 작업 형태 및 평가

음악수업은 기본적으로 음악실의 공간과 설비에 의존적이다. 이에 대한 언급은 음악수업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며, 학생 좌석 배치 및 모듈 수업에 대한 안내 역시 같은 방향의 점검에 속한다. 그리고 증가하는 매체들은 교사의 비판적 검토를 거쳐 수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교육방송은 수업을 풍요하게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함을 환기시키고, 어린이들에게 매체 기기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가르침으로써 유익한 방송을 학습에 활용하게 하고 있다.

학습 결과의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의 기본적 역할이 먼저 언급된다. 즉, 평가는 학생들에게 성취 상태를 알려주고, 이후의 성취 욕구를 북돋우며, 나아가 교사에게 수업 방법을 돌아보게 한다. 음악수업의 모든 영역에서 학습 성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세 분야로 나뉘어 제시된다. a. 지식(예: 음향 생산 도구, 악기 이름), b. 지식 활용 능력(예: 악보에 나타난 음악적 진행 알아보기), c. 연주 능력(예: 오르프 악기, 노래하기).

학습 성취도는 질문이나 대화 등의 구두 형태로, 학습지나 시험 등의 지필 형태로, 그리고 악보 보고 연주하기 또는 듣고 모방하기 등의 실기 형태로 이루어진다. 구두 평가는 경직된 언어 표현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음악 활동에서 학습 단계를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가 함께 고려될 수 있다. 학생의 성취도에 대한 평가는 빨라야 2학년 말에야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3. 내용 구성

초등 음악교과 내용은 ‘청각적 지각(수용과 반향)’, ‘음악적 활동(생산과 재생산)’, ‘음악적-음향적 지식’, ‘공공생활에서의 음악’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각 영역은 두 세 개씩의 하위 영역을 가지며, 각각 목표, 내용, 수업 안내로 구분되어 있다.

<표 2> 1970년대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대영역	중영역	설명 방식
· 청각적 지각(수용과 반향)	· 주변 환경의 청각 인상 · 음악 듣기	· 목표들 · 내용들 · 수업 안내
· 음악적 활동(생산과 재생산)	· 음향 활용 · 목소리 활용 · 악기 연주	
· 음악적-음향적 지식	· 기보법 · 악기 알기 · 기술 매체 활용	
· 공공생활에서의 음악	· 음악 생활의 구조들 · 음악의 기능	

‘청각적 지각’ 영역은 ‘주변 환경의 청각 인상’과 ‘음악 듣기’로 나뉜다. 다시 말하면 포괄적 듣기 활동과 소위 예술적 음악작품의 음미 활동이 분리되어 있다. 첫째 사항에서는 모든 음향들이 다루어진다. 이를테면 거리, 작업장, 학교, 집, 자연의 소음을 수업 소재로 쓸 수 있다. 악기나 도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같은 영역의 활동이다. 이를 통하여 청각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들은 소리를 구별하며,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둘째 사항에서는 다양한 시대와 양식의 음악을 들음으로써 음악의 다양함을 체험하고, 음악에 대한 인상 및 형식 진행을 이야기하게 한다. 이러한 음악 듣기를 위하여 참고할 수 있는 악곡을 음악 요소별로 제시하고 있다.

<표 3> 1970년대의 듣기 악곡 예시

작곡가	작품	관점
펜데레츠키	《음향의 본질로부터》, 《아나클라시스》(부분)	구성 요소 관련
슈톡하우젠	《습작 II》(부분)	
그리그	《산 왕의 궁전에서》	증가
베토벤	《9번 교향곡》 제4악장(마디 92-187)	
바르톡	《어린이를 위하여》 II 27, <i>Allegramente</i>	대조
-	콘체르토 그로소: 콘체르티노와 총주의 교대	
모차르트	징슈필 《후궁에서의 유괴》의 서곡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 제3악장 시작 부분	
	간단한 변주곡	변화
예: 바르톡	《여우 노래》(Fuchslied)	
리게티	《아트모스페르》(부분)	
	간단한 피아노곡의 노래형식	형식 진행
비교: 슈만	《어린이 앨범》	
비교: 바르톡	《어린이를 위하여》	
	론도 형식	
예: 바흐	《바이올린 협주곡 E장조》 제3악장	
하이드, 모차르트, 슈베르트	미뉴에트, 왈츠 등의 춤 형식	음악과 표제
스트라빈스키	《페트루슈카》 중 〈연말시장 풍경〉	
베토벤	《6번 교향곡》 중 〈폭풍우〉	
오네거	《태평양 231》(시작 부분)	
생상	《동물의 사육제》	

‘음악적 활동’은 부제에서 보듯이 음악의 생산과 재생산을 포괄한다. 여러 가지 연주법을 활용하여 소리 생산의 다양함을 체험하고 하고, 목소리를 활용하여 많은 종류의 노래를 부르게 한다. 노래 외에 언어 리듬 및 목소리 음향을 폭넓게 실험해 보는 활동도 제시되고 있다. 악기 연주는 음악의 생산 및 재생산의 주요 방편이다. 오르프 악기를 포함하여 모든 전통적 악기가 수업에 쓰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노래 반주, 간단한 기악곡의 연주, 즉흥연주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음악적-음향적 지식’ 영역은 음악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소위 지식 위

주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거기에는 ‘기보법’, ‘악기 알기’, ‘기술 매체 활용’의 하위 영역이 있다. 기보법에서는 도식 악보와 전통 악보, 그리고 음향 진행을 간단히 표현한 악식 악보를 다룬다. 악기 알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악기의 연주 방식에 따른 악기 구별 및 그 재료를 알아보고, 실제 음악의 청취를 통해 소리의 특징을 확인하게 한다. 각 악기군에 따른 듣기곡의 예시는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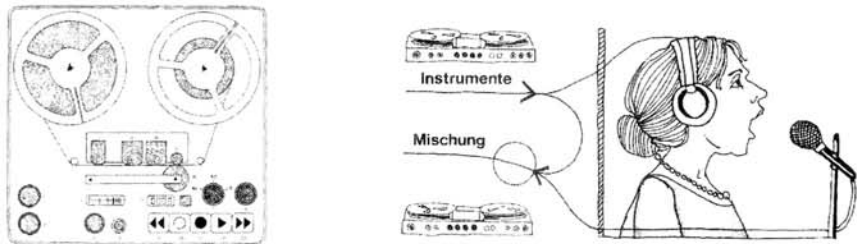
<표 4> 악기 학습에서의 듣기곡

악기군	듣기곡
통기	헨델: 《하프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op. 4, 제6번 모차르트: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KV 299 세고비아 연주의 기타 음악 남미의 민속음악(<i>Los Paraguas</i>) 피치카토 폴카
긋기	바흐: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WV 10 라벨: <i>Tzigane</i> 펜데레츠키: <i>Anaklasis</i>
치기	슈톡하우젠: 《타악기를 위한 순환곡》 대중음악
불기	바흐: 《브란덴부르크 콘체르토》 제4번 루마니아 민속음악(팬 플루트) 모차르트: 《요술 피리》 중 〈새잡이꾼 노래〉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 드뷔시: <i>Syrink</i> 카젤: 《금관악기를 위한 숨쉬기》
건반악기	-

‘기술 매체 활용’은 당시의 기준에서 음악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향기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테면 테이프 녹음기, 전축, 라디오의 조작과 사용법을 익힌다. 특이한 것은 원형 테이프의 절단과 접착 등을 배우게 하고 있는 점이다. 나아가 원형 테이프의 속도를 다르게 하거나 부분들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보게 한다. 나아가 원형 테이프의 다중 실행을 통해 ‘현대’의 녹음 기술을 접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당시의 음악 교과서를 보면 이 내용이 16쪽에 걸쳐 매우 비중 있게 다

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Breckoff et. al, 1975 pp. 42-56).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내용은 30년이 지난 2000년대에 더 이상 교과 내용으로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계열에 속하는 미디나 신시사이저 등의 음악 활동이 매우 절제되어 있다. 인간 중심의 실제 연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자 기기들을 초등 교과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같은 출판사의 2000년대 초등 음악교과서를 보면 휴대용 오디오를 통해 음악을 듣는 모습과 음악 연주 컴퓨터 창이 간단한 삽화로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Küntzel, 2004, pp. 36 & 91).



<그림 1> 1970년대 교과서의 음향 기계 관련 단원 그림들



<그림 2> 2000년대 교과서의 음향 기계 관련 단원 그림들

‘공공생활에서의 음악’ 영역의 첫째 하위 영역인 ‘음악 생활의 구조들’에서는 사회에서의 음악 유통을 다룬다. 음악 연주와 수용의 관계를 다양한 예를 통해 조명하고, 광고와 유행의 예에서 음악과 상품의 관계를 인식하게 한다. 이와 더불어 음악문화의 촉진 및 음악가의 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둘째 하위 영역인 ‘음악의 기능’은 사회에서 소통되는 여러 가지 음악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 쓰임새 및 특징을 파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Ⅲ. 2000년대

1. 전체 구조

음악교과의 전체 구조를 서술함에 있어서 이분 구조를 벗어나 네 부분으로 세분화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먼저 ‘목적·목표들’(Ziele)이 언급되고, 이어서 ‘교수법적 원칙들’(Didaktische Grundsätze)이 서술된 다음, ‘내용’(Inhalte)이 제시되고, ‘성취도와 평가 기준’(Anforderungen und Beurteilungskriterien)이 덧붙여진다.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전처럼 부록이 있는데, 그 가지 수와 내용이 늘었다(표 5 참조).

<표 5> 2000년대 교육과정의 구성

구분	하위 제목
목적·목표	
교수법적 원칙들	
내용들	1. 필수 내용 · 수업 제재 · 활동 방식 · 고찰 방식
	2. 주제들

구분	하위 제목
성취도와 평가 기준	1. 성취도 · 2학년 종료 기준 · 4학년 종료 기준
	2. 평가 기준
부록	· 주제 예 · 타 교과 및 공통 영역에 대한 안내 · 범교과 프로젝트의 예 · 듣기 곡 예

음악교과의 의의를 밝히고 그것에서 내용을 도출해 내는 방식은 1970년대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다. 그런데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 달라져 있다. 첫째, 목적 및 목표를 보다 분명한 용어로 구분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초등학교에서 음악수업의 과업들’이라는 포괄적 제목 아래 음악교과의 지향점을 제시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목적 및 목표(Ziele)가 독립적인 위치를 부여받고 있다.

둘째, 평가 관련 부분이 내용 제시 뒤에 위치하여 내용과의 관련성을 높이고 있다. 성취도의 제시는 내용 제시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특히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제시 순서가 바뀔 때 따라 평가를 위해 내용을 제시하는 듯한 인상이 약화되고 내용의 효율적 소화를 위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느낌이 강화된다.

2. 목적·목표

교육 목적과 목표는 일반적으로 구체성의 정도와 성취도 측정의 면에서 상하의 관계를 갖는다. 그런데 독일어 ‘Ziel’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며, 일상적으로는 목표의 성격에 가깝게 쓰인다.²⁾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970년대의 교육과정에서 이 목표는 각 내용 영역별로 제시되었다(표 2

2) 여기에서 ‘목적’과 ‘목표’를 구분한 것은 한국어 습관에 따른 것이다. 원문에는 ‘Ziele’ 아래에 교과 목적(성격)을 나타내는 문단이 있고, 그 아래에 목표들이 제목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참조). 그리고 목적의 의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음악수업의 과업들’로 표현하였다. 그런데 이제 목적·목표 부분이 합쳐지면서 교과 내용과의 위계성이 분명해진 셈이다. 그래서 영역별 목표에 따른 내용의 제시를 탈피하고, 교과 목표에 따른 내용의 제시로 서술 방향이 변경된 느낌이 있다.

<표 6> 2000년대 교육과정의 목표와 교수법적 원칙

구분	주요 내용
[목적]	· 주제어 없음: 문장만으로 서술 [수단: 구성적 능력, 체험 능력, 표현 능력]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목적은 노래하기와 연주하기에서, 음악 들기와 음악에 따라 움직이기에서 어린이들의 즐거움을 일깨우고 갖게 하는 것이다. [...] 음악수업은 문화적 삶을 능동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한다.”
[목표]	· 지각 및 청취 능력 · 느낌 및 체험 능력 · 공동 음악활동 능력 · 상상(판타지)과 표현 능력 · 제시 및 구성 능력 · 음악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 · 음악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음악교과목의 목적이 음악에 대한 어린이들의 즐거움의 장려에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능동적 문화생활을 위한 역량 증대에 있음을 직시한다. 이 내용은 큰 틀에서 보았을 때 1970년의 것과 비교하여 달라진 것이 아니다. 하지만 위계를 살려 제시함으로써 더 강조되는 효과를 낸다. 그리고 ‘문화적 삶’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사용하여 교과 내용의 하위 줄기를 안내하고 있다. 목적 언급에서 수단의 의미로 ‘구성적 능력’, ‘체험 능력’, ‘표현 능력’의 제고가 앞에 제시되고 있는데, 목표 단계에서는 그것들을 더 세분화시켜 일곱 가지로 나타내고 있다(표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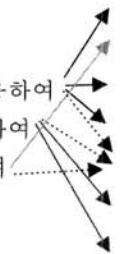
3. 교수법적 원칙

2000년대의 교육과정에서는 먼저 음악수업의 기본 원칙을 언급하고 있

다. 1970년대의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수업을 어떻게 구성하고 전개할 것인가를 구체적 예와 함께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제 음악수업과 관련된 기본 원칙만을 언급하고, 개별 수업의 구체적 전개는 현장의 상황에 일임하고 있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수업의 방식은 교과 목적에 종속적이므로 이 단계에서 개별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나타날 필요는 없다. 즉, 음악교과 내용의 설정 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 자체가 수업 구성의 구체적 방법을 이끌어내는 바탕이 된다.

이 부분에서 한 세대의 간격을 두고 나타난 중요한 차이의 하나는 이제 음악교과의 지향점과 그것의 실현을 위한 기본 지침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에는 ‘학생’, ‘사회’, ‘음악’으로 대별되어 교과 성격과 교수법적 고려 사항이 함께 서술되었으나, 2000년대에는 육성시키려는 능력(목적·목표)과 그것을 위한 방법(교수법적 원칙)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그리고 ‘행동 중심’, ‘언어 중용’, ‘양성 평등’ 등의 관점들이 보충되었다. 이 가운데 언어를 의식하는 지침은 이전의 세 관점의 어느 하나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항이다. 음악과 관련된 언어 사용의 촉진은 21세기의 새로운 교육 경향으로 여겨지며, 음악교과 안에서 사고적 활동을 강조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표 7> 교수법적 내용의 비교

구분	1970년대	2000년대
제시 방식	· 교과 성격 제시의 ‘음악수업의 과업들’에 포함	· ‘교수법적 원칙’으로 구분
주요 사항	· 학생들의 필요에 부응하여 · 사회적 현실에 부응하여 · 음악 자체에 부응하여 	· 개별화를 통한 모든 어린이의 지원 · 음악적 사항의 학습 · 학생 중심의 학습 · 행동 중심의 학습 · 언어 중용의 학습 · 사회적 학습 · 양성 평등의 촉진

4. 내용 구성

2000년대의 교육과정에서는 음악교과와 내용을 제시하는 방식이 처음부터 아예 주제 중심의 수업에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내용 제시 부분은 ‘필수적 내용’과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현장에서 수업 내용은 최종적으로 중·대단원 형태의 주제로 재구성되어 다루어진다. 주제 중심의 수업은 1970년대의 음악교과에서도 사용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제시 방식이 중영역 형태의 내용제시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당시의 음악교과서 역시 그러한 중단원 형태의 주제별 단원으로 구성되었다(Breckoff et al., 1975). 그런데 2000년대에는 수업 소재를 활동과 구별하여 제시하고, 나아가 음악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덧붙인 결과, 수업용 주제의 구성 방식에 대한 직접적 안내가 별도로 필요하게 된 셈이다. 말하자면 음악교과와 세부적 내용만을 제시하다 보면 그것들을 수업에서 구체화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것들을 어떻게 수업용으로 바꿀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언급하고 있다.

‘필수적 내용’은 ‘수업 소재’(Unterrichtsgegenstände), ‘활동 방식’(Umgangsweisen), ‘고찰 방식’(Betrachtungsweisen)을 포함한다. 전통적 관점에 의하면 수업 소재가 교과와 직접적 내용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활동 중심의 음악수업을 염두에 두게 되면 어떻게 활동시킬 것인가가 또한 내용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음악의 고찰 방식이 대개 음악교과와 내용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배울 내용을 대하는 관점에 가까운 사항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이제 ‘음악 소재’에 들어 있는 음악 지식 부분과 구분하여 고찰 방식을 별도로 다룸에 따라 그러한 음악수용 방식 자체가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나타난다. 때로 ‘음악’을 가르치면서 마치 음악에 ‘관하여’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으나, 2000년대의 내용에서는 그것이 음악교과의 존립에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형성한다. 앞에 제시된 목표들을 달성하려면 ‘수업 소재’가 ‘활동 방식’을 거쳐 ‘고찰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음악적 지식이나 기능 자체가 곧 그것의 역할과 가치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거기에 깔려 있음을 읽을 수 있다.

<표 8> 2000년대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대영역	중영역	설명 방식
수업 소개	· 노래들 · 음향 창작 · 간단한 움직임 및 춤 동작 · 목소리 · 간단한 음악적 형식들 · 네 개의 음악작품 · 기초적 노래 반주 · 기초적 연주곡 · 교실 악기 · 악보 · 구성 요소 · 세 명의 작곡가	· 취지 및 구체 적 내용
활동 방식	· 노래하기/말하기 및 노래 목소리 · 악기 연주하기 · 음악 발견하기 · 음악 듣기/듣기 교육 · 음악 전이시키기 · 음악에 대해 숙고하기	
고찰 방식	· 음향과 정돈으로서의 음악 · 표현, 서술, 작용으로서의 음악 · 문화적 기록물 및 유산으로서의 음악 · 생활에서의 음악	

음악수업의 주제들은 음악교과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수업 용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교수법적 원칙 및 교과 목적·목표가 다 반영된 결과이다. 그래서 음악은 수업 주제들에 의해서 의미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주제별 음악수업은 물론 학교의 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다. 수업 주제의 설정 및 소화에서는 제시된 음악교과 내용을 고려함과 아울러, 어린이들의 삶과 관심, 동기 유발, 양식과 장르에 대한 열린 안목, 학년별 성취 기준을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각 학년은 최소한 세 개 이상의 주제들을 다루어야 하며, 학년별 주제의 설정은 교과협의회에서 정한다. 부록에는 그러한 작업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수업 주제들이 예시되어 있다.

<표 9> 수업 주제의 예시

수업 주제
· 이것이 나야 - 이것이 내 친구들이야
· 음악에서의 동물들
· 동화와 음악
· 계절은 어떻게 울리나?
· 유령과 허깨비의 소리들
· 기계, 로봇, 컴퓨터의 음악
· 시계 나라의 음악 - 시간
· 조개, 바다, 모래의 음악
· 놀이를 위한 요술 음악
· 우리와 다른 곳의 음악
· 음악에서의 고요와 소음

5. 성취도와 평가 기준

음악교과 수업의 결과에 대한 점검은 성취도와 평가 기준으로 나뉘어 나타난다. 앞의 교과 내용에서는 학년 구분이 없었으며, 학년에 따른 수업 주제의 선정이 교사들에게 일임되어 있었다. 하지만 성취도는 두 학년씩을 묶어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같은 내용 또는 주제를 다루더라도, 도달시켜야 할 성취 정도에 따라 각 학년 그룹(1·2, 3·4학년)의 수업 전개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성취도는 기본적으로 음악교과의 내용에 종속적이다. 하지만 내용 제시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지는 않는다. 수업 현장에서의 활용을 위해 재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초적 음악 활동 능력과 음악적 지식의 습득 및 활용 능력을 담고 있다. 1·2학년 그룹에서는 개인별 부담이 없는 음악 관련 활동 능력과 언어적 표현을 요구하고, 3·4학년 그룹에서는 이전 사항을 심화시키면서 지식적 사항까지 소화하도록 하였다. 표 10은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조망의 편의를 위해 같은 사항끼리 줄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표 10> 학년 그룹에 따른 성취도

2학년 말	4학년 말
- 노래하기의 기본적 능력, 외워서 그룹으로 함께 부르고 듣기 - 수업 시간에 배운 노래 중 하나 부를 수 있기 - 노래의 내용 이해하기	여러 절의 노래 외워서 부르기, 노래의 내용과 음악적 표현에 어울리게 부르기
교실 악기의 기초적 연주 능력	- 노래 반주 및 연주곡을 성공적으로 함께 연주할 수 있도록 능력 확대하기 - 간단한 반주 성부를 외워 연주하며, 그래프 악보와 전통 악보 따라가기
음악에 따라 의식적으로 움직이기	리듬을 신체움직임으로 파악하기, 음악을 자유로운 신체움직임으로 즉흥 표현하기, 주어진 움직임을 정확히 표현하기, 음악의 분위기와 내용을 신체움직임으로 바꾸기
주의해 듣기, 개별 음향 요소 구별하기	수행 과제에 따라 음악을 집중하여 듣고 그 결과 알리기
음악적 인상을 언어로 표현하기	음악과 음악외적 내용의 관계 형성해 내기
[4학년 말의 단계에 새롭게 추가된 것]	
- 목소리에 대한 지식 - 동료가 학급에서 연주하는 악기, 몇 가지로 선정된 오케스트라 악기에 대한 지식 - 리듬 관련 기본 음가, 오선보 체계, 높은음자리표, 중요한 기보 기호 알기, 가락 진행 추적하기, 순차 및 도약진행 구분하기 - 간단한 음악 형식들 알고 이야기하기 - 오케스트라 음악, 표제음악, 독주 협주곡 분야에서 선정된 최소한 세 명의 작곡가와 그들의 작품 알기	

‘평가 기준’은 학생의 성취도 점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뜻한다. 따라서 ‘평가 요령’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전체적으로 아홉 개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평가 여건, 평가 방식, 평가 요령으로 나뉘볼 수 있다. 평가에 대한 원칙적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음악교과의 내용이 교과목의 목적 달성에 쓰여야 하고, 그 과정의 점검이 평가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표 11> 평가 기준들

구분	지침 내용	비고
[여건]	· 개별 학생의 사전 상황 고려 · 사회성 반영	
[방식]	· 구두 능력 · 실기 능력 · 필기 능력	구두 및 실기 능력이 중심에 있음.
[요령]	· 수업 관련성의 투명한 공지 · 결과와 과정(행동 방식: 주체성, 참을성, 개방성, 협동심) · 이중 언어 사용 학생 배려 · 성취도 요소의 고른 분포 추구	

IV. 특징적 변화

2000년대에 이르러 기본적으로 1970년대의 내용이 제외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용을 다루는 방식이 보다 체계화되어 전체적 내용 구조에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영역 설정이 음악교과 내용의 여러 측면으로 세분화 되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업 내용으로서의 주제들을 도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전에는 수업용 주제를 드러내어 음악수업 단원을 곧바로 제시하였다면, 이제 주제가 도출되는 맥락을 제시하여 창의적 주제 단원을 설정하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교과 내용의 구성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전에 '청각적 지각'과 '공공생활에서의 음악'에 분산되어 있던 음악 고찰 방식이 별도의 대영역으로 구분된 점이다.

그리고 세부적 영역(중영역)에서 새롭게 강조된 사항들이 있다. 그 첫째 사항은 세 명의 작곡가를 선정하여 배우도록 명문화 한 점이다. 이전에는 예술 음악 작품의 학습 안내와 더불어 제재곡들을 작곡가 이름과 함께 추천하였다. 그러한 제재곡 추천은 2000년대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작곡가를 다루도록 안내하고 있다. 음악을 단순한 '구조'의

차원만이 아닌 ‘맥락’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면, 전기적(傳記的) 작곡가 고찰이 필수적이다. 그만큼 작곡가 연구의 결과가 축적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서양에서 음악학의 발달은 전통적으로 작품 및 작곡가 연구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삶 중심의 생생한 음악 이해에는 작곡가에 대한 접근이 매우 유용하다. 부수적으로 제시된 듣기 악곡의 선정 경향은, 비록 대부분의 악곡이 바뀌었으나, 전체적으로 그 양식적 조합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현대음악까지 포함한 예술음악의 집합이라는 색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앞의 표 3과 비교).

<표 12> 2000년대의 듣기 악곡 예시

작곡가	작품
바흐	《성탄절 오라토리오》 중 합창 번호 9, 17, 23
비제	《어린이 연주》 op. 22(오케스트라 편성)
헨델	《수상 음악》 중 미뉴에트 F장조, 《왕궁의 불꽃놀이》 중 <i>〈La Rejouissance〉</i>
하이든	《고별 교향곡》 마지막 악장, 《사계》 중 〈해돋이〉 합창 번호 12, 트럼펫 협주곡 Eb 장조, 현악사중주 《황제》 제2악장
앙리	《La Reine verte》 중 〈곤충들〉
L. 모차르트	《음악 썰매타기》 중 제2, 3악장, 《장난감 교향곡》 ³⁾
모차르트	《요술 피리》 중 〈새잡이꾼 노래〉, 《파곳 협주곡》의 〈론도〉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중 〈난쟁이〉와 〈바바야가 마녀〉
프로코피예프	《피터와 늑대》
풀랑	《작은 코끼리 바바르의 이야기》
림스키코르사코프	《황제 술탄의 이야기》 중 〈왕벌의 비행〉
롯시니	《두 고양이 듀엣》,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폭풍우〉
생상	《동물의 사육제》(부분)
슈만	《어린이 앨범》 중 〈Knecht Ruprecht〉
스트라빈스키	《불새》(부분)
텔레만	《교장 칸타타》(부분)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부분)
빌라-로보스	《카피라의 작은 철도》
비발디	《사계》 중 〈봄〉
베버	《마탄의 사수》 중 〈Kugelsegen〉

3) 오늘날 이 작품의 작곡자가 안거러(Edmund Angerer, 1740-1794)라는 주장이 있다 (Hermann-Schneider, 1996).

가창 제재곡과 관련하여 1970년대에는 다양한 노래들이 예시되었으나 2000년대에는 가창곡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그 대신 다양한 노래의 종류를 거의 유사하게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이르러 4학년에서 독일 국가를 다루도록 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활동 방식 분야에서는 ‘음악 발견하기’와 ‘음악 바꿔 표현하기’ 및 ‘음악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가 새로 설정되어 있다. 이 내용들은 이전에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지금까지 별도의 중영역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음악 발견하기’는 소위 창작 활동에 해당하는데, 작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실험과 시도들을 통하여 스스로 음악을 찾고 만들어가는 작업을 지칭한다. ‘음악 바꿔 표현하기’는 음악적 인상을 신체움직임, 그림, 장면, 글 등으로 바꿔 나타내 보는 활동이다.

‘음악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는 여러 가지 음악활동에서 구체적으로 지각한 것을 사고를 통해 이해하고 말로 표현하는 작업이다. 소리를 직접 만들어 내거나 듣는 관점에서 보면 독립된 활동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음악 이해를 위한 활동의 입장에서 보면 음악의 작용과 기능, 음악의 역사적, 사회적, 미학적 관련성을 파악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새롭게 설정된 대영역 ‘고찰 방식’이 있음에 따라 음악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는 굳이 넣지 않아도 내용에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이 활동 방식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음악을 이해하는 방식이 단순한 관점의 역할만을 해서는 안 됨을 뜻한다. 즉, 음악의 활용을 살펴보는 것이 음악교과에서 중요한 학습 활동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V. 결 론

시대가 변화면 사회가 변하고, 그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달라진다. 교과가 통폐합되거나 새로운 교과가 생겨나는 현상은 교육의 시대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하나의 교과가 계속 유지되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

라 그 성격과 내용 및 수업 방법이 달라진다.

독일 함부르크 주의 초등 음악교과 내용이 한 세대의 간격을 두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본 결과 교과와 기본적 성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여전히 음악교과는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접하는 즐거움을 전함으로써 문화적 삶을 영위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1970년대에 비하여 2000년대에는 문화적 관련성이 보다 더 가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음악교과와 내용에서 보이는 가장 큰 변화는 음악에 대한 사고적 접근을 강화한 것이다. 음악 소재와 활동뿐만 아니라 음악 고찰 활동 자체를 교과와 내용 구성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창의적 활동을 직접적으로 이끄는 ‘음악 발견하기’, ‘음악 바꿔 표현하기’, ‘음악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가 활동 방식의 중영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음악학적 정보를 다루는 작곡가 알기가 수업 소재로 보충되어 있다. 나아가 음악 수용 교육의 교과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 주제별 수업을 직접 안내하고, 그 설정 방식 및 실제적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음악의 실제 활용도를 교과 수요자의 입장에서 높이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오늘날 한국에서 음악교과는 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자주 받는다. 음악교과가 공통 필수 교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명분에는 음악이 그만큼 교육적으로 효용 가치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음악과 더불어 어린이들이 바람직한 품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있다. 그러한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면 음악교과와 내용이 시대의 변천에 맞게 보충되어야 한다. 음악의 발달과 수용은 원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것을 향유하는 인간과 사회 역시 달라지기 때문이다.

독일 함부르크 주의 음악교과 내용을 보면 이미 1970년대에 매우 진취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2000년대에 그것이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다듬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음악교과와 내용은 부분적으로 1970년대의 독일 것에 미치지 못한 면이 있다. 한국 사회는 20세기 후반의 급격한 변화로 서양의 사회와 상당히 유사해졌고, 어린이들의 성향 역시 그러한 면을 보인다. 따라서 음악교과와 내용을 설정하거나 조정할 때

외국 음악교과의 내용 변천이 시사하는 바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고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Breckoff, W. et al. (1975). *Musikbuch-Primarstufe B*. Hannover: Schoedel.
- Elliott, D.J. (1995). *Music Matt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ruhn, W. (2003). *Lernziel Musik*. Hildesheim: Georg Olm, 2003.
- Guenther, U. (1970). "Musikunterricht in der Gesamtschule. Prinzipien, Ziele und Aufgaben", in: *Bildungsinhalte des Faches Musik*. Mainz: Schott.
- Herrmann-Schneider, H. (1996). *Edmund Angerer OSB (1740-1794) aus Stift Fiecht/Tirol*. In: *Mozart-Jahrbuch*.
- Kaiser, H. (1984). "Musikunterricht fuer alle?", in: *Musikpädagogische Konzeption und Schullalltag*. Wilhelmshaven: Heinrichshofen.
- Küntzel, B. (Hrsg.) (2004). *Kolibri. Musikbuch 3/4*. Braunschweig: Schroedel.
- Labuta, J.A. & Smith B.A. (1997). *Music Education. Historical Contexts and Perspectives*, Upper Saddle River: Prentice Hall.
- Mark, M. (1996). *Contemporary Music Education*. 3rd ed. Belmont: Schirmer Thomson Learning.
- Nolte, E. (1982). *Die neuen Curricula, Lehrpläne und Richtlinien für den Musikunterricht an den allgemeinbildenden Schul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West-Berlin*. Mainz: Schott.
- Reimer, B. (2003).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3rd e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 Hall.
- Woodford, P. (2005). *Democracy and Music Educat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http://www.bildungsplaene.bbs.hamburg.de>

권덕원 외 (2005).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성경희 외 (2005).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원명 외 (2002). 국제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음악과 교과과정의 특성 분석. 음악과 민족 24. 민족음악학회.

양종모, 이경언 (2001). 음악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1-13.

양종모, 이경언 (2002). 음악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I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2-9.

주대창 (2003). 초등 음악교과교육의 발달과 그 전문성. 음악교육 3. 한국유초등음악교육학회.

주대창 (2004). 근대 미학적 사고에 비추어 본 음악교과교육의 근거. 음악과 민족 27. 민족음악학회.

ABSTRACT

New Contents of Elementary Music Class in the Curricula of Hamburg in Germany

Dae Chang Ju

General music class in public schools has to reflect the trends in society. Therefore curricula for music class have shown great attention to the question of constructing contents how to adjust their guidelines to a social standard with the changes of times. This paper attempts to highlight variations of educational contents in German curricula for elementary music class which are kept in the 1970s and the 2000s in Hamburg.

Both curricula which stay at a distance of one generation concentrate on motivating children to enjoy music culture. However the new one in the 2000s gives much more weight to the consideration of music. Music lesson uses accordingly to introduce opportunities which are a result or consequence of contact with music in daily life. Various themes should be formed as the central figure of music lesson in order to materialize educational elements the curriculum in 2000s contains.

Key Words : contents of music class, curriculum for music class, elementary music education, music education in Germany

심사 날짜: 11월 7일
수정 날짜: 12월 1일